

현대의 소외계층 도시빈민 연구서

문제 심각성 대두되며 관련 저술 점차 늘어

도시빈민이 4백만에 육박한다는 한 통계자료는 이 집단이 더이상 '소외계층'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수치로 입증한다. 열악한 환경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의 삶의 조건들은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순한 개념정의 이상의 복잡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른바 '도시빈민론'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이 적잖이 이뤄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빈민운동'이 대사회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서점가에는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도시빈민에 관한 연구서나 현장보고서 등이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학계와 빈민운동단체가 두 축을 이루는 이 책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환경학이나 도시사회학의 연장선상에서 빈민촌의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이론서와 도시빈민을 계층론의 시각에서 분석한 사회과학서, 그리고 그 동안의 빈민운동 사례를 모은 자료집과 현장조사에 바탕한 실태보고서가 그것이다.

학계와 빈민운동단체가 주축 이뤄

이 방면의 학계의 연구성과는 아직 충분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좁게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정책, 지역사회학, 도시공학 등의 도시사회학이나 넓게는 환경학의 소항목으로, 또는 사회학에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문제적 현상으로 편입돼 논의될 뿐, 지금까지 중심 주제로는 다루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분히 이론적인 성격을 띤 이 책들 중 비교적 비중 있게 도시빈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한국사회사연구회(회장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한국의 도시문제와 지역사회」 「현대 한국의 노동문제와 도시정책」을 비롯해 「현대 도시문제의 이해」(김한준 외, 한길사)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최병두·한지연 엮음, 한울아카데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도시문제와 지역사회」은 80년대 도시공간 재편성 정책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제별로 다룬 논문집으로, 목동과 사당동의 경우와 같은 도시개발정책의 각종 사례연구와 지역운동과 연계된 세입자운동의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도시 노점상문제 등 도시빈민의 노동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현대도시문제의 이해」와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은 보다 원론적 입장을 보여주

인구 4백만에 육박한다는

도시빈민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양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서들은

도시빈민 연구의 탄탄한 출발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는 이론서들로, 모두 정치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 도시화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갈등상황을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의 표출로 이해하면서 60년대 이후 진행된 도시화과정과 주택, 공해문제와 함께 도시빈민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도시빈민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접근을 시도한 위의 책들과는 달리 사회과학적 인식들을 기반으로 도시빈민에 대한 계급·계층론적 접근과 실태분석을 보여주고 있는 책들은 궁극적으로 빈민운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계열의 대표적 저술로는 아침출판사의 '도시빈민연구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현재 4권까지 나와 있는 이 시리즈는 80년대 중반 일련의 사회과학서 붐을 타고 출간되기 시작해 여타의 실천운동과의 연장선상에서 도시빈민운동에 관심을 모으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도시빈민의 개념정의에서부터 빈민여성·빈민아동을 비롯한 도시빈민의 현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한편 그간의 도시빈민운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권별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빈민연구」(정동익)는 도시빈민의 형성과정과 계층적 위치, 생활조건, 빈민운동 자료를 정리한 도시빈민연구의 입문서. 도시빈민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석씨의 「도시빈민론」과 「한국사회성격과 도시빈민운동」은 도시빈민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한 도시빈민의 계층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도시빈민을 기층민중의 주요한 부분이자 고유계급으로 인식, 도시빈민이라는 계급형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는 한편 그 구조와 실태, 그 동안의 빈민운동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있다. 「빈민



신림동과 난곡동 일대에 걸쳐 있는 빈민촌.

여성 빈민아동」(강명순)은 지난 75년부터 10년간 사당동 재개발지역에서의 저자의 빈민운동 경험을 토대로 도시빈민 중에서도 여성과 아동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사례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장조사 바탕한 보고서도 주목돼

도시빈민 문제가 지닌 특성상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료는 도시빈민연구의 일차적 자료로,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현장조사 연구서로 눈에 띄는 것으로는 최근 출간된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태 연구」(양태진, 열화당)와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조은·조옥라, 서울대출판부)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태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구로4동, 봉천5동, 금호3가, 신림2동 등 '달동네' 10개 구역을 대거, 가로, 건물 등의 건축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그 공간구조와 형태적 특성을 현장감 있는 자료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은 사회학자인 두 저자가 오랜 기간동안의 사당동 재개발지역에서의 현장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서부터 생활실태, 재개발 추진과정, 이주실태,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지역빈민운동의 성격과 한계, 사회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밖에도 현장활동가들과 관련학자,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주거·보건의료·교육·생계문제 등 도시빈민 지역과 주민들의 당면문제 해결책을 여러 사례연구를 통해 모색해본 「도시 주민 지역운동」(송실대기독교사회연구소 엮음, 한울)이나 빈민촌의 역사적 특수성, 물

리공간적 특성, 취업구조,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자유와 특징, 그리고 재개발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불량촌과 재개발」(김형국 엮음, 나남)도 도시빈민촌과 지역주민의 실상을 전해주는 현장 연구서이자 르포르주 성격을 지닌 의미있는 자료집으로 꼽힌다. 이들과 함께 현재 전국빈민연합 의장으로 빈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연수씨가 전국노점상연합회의 활동상과 도시빈민 철거반대운동 등 일련의 도시빈민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전망 등을 현장체험을 통해 생생히 밝힌 「여기 새 땅 만들기까지」(새길)는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절실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 관심에 비해 관련서는 아직 적어

지난 30여년간 계속되온 산업화·도시화의 부산물로, 이제는 전체 도시인구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도시빈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주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출간된 관련서들은 빈민운동가나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것들로, 일정한 운동성이 두드러진 일련의 사회과학서의 한부분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학이나 환경학, 건축학 등 관련 학문에서의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차츰 선보이기 시작함으로써 학계의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도시빈민 문제가 떠오르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아직 양적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들 학계 연구서는 철저한 현장조사가 돋보이는 보고서나 자료집의 성격을 띠고 있어 도시빈민 연구의 탄탄한 출발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 정소연 기자